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조혜영** 노현주***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Perceived
Hom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go-resilience of Young
Children

: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 Hye Young Noh, Hyun Ju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96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의 가족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 자아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후, Pearson의 상관관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영향력과 조절효과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는 유아의 자아 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73.4%의 설명력을 가지며,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환경,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 탄력성, 조절효과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 제 1저자(교신저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e-mail : johyey@hanmail.net)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I. 서론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7,080명 가운데 0-9세 아동은 1,177명으로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4).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적응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며(Hovey & Magana, 2002), 낮은 자긍심을 갖게 한다(Castro, 2003).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 정체성이 혼란해 지고, 이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형성하게 되어 결국,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권정운, 조혜영, 김미경, 2013; 전혜림, 2014). 마찬가지로, Van Tuijl 과 Leseman(2007)이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정서적 불안감은 성장하면서 부적응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조기지원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성취감을 느낄 때, 자녀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서적·환경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기의 경험과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행동은 상이 할 수 있다. 전 생애 가운데 유아기는 우리사회에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수월하며,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다양한 경험과 환경제공은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과 위험, 그리고 역경을 극복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신장시켜줄 수 있다.

우리사회에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요인은 자아 탄력성이라 할 수 있다. 자아 탄력성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긍정적인 성취를 도모하는 능력이며(Chuang, Lamb, & Hwang, 2006; Masten, 2001), 역동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이기 때문에(Block & Block, 1980) 유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LeBuffe와 Naglieri(1999)는 자아 탄력성의 요소를 애착, 자기통제, 주도성으로 보았으며, Block과 Block(1980)는 내면적인 특징을 가진 대인관계, 심리적인 안정감, 부정적인 감정의 대처 능력 등이 구성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자아 탄력성이 높으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저항하여 이를 낮추어(Block & Block, 1980; Luthar, 1991;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Rolfe, 2004) 스스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거나 다양한 대처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Garmezy, 1993). 유아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은 발달하는 가운데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Cambell, Pierce, March, Ewing, & Szumowski, 1994; Fantuzzo, McWayne, & Blosky, 2003), 과업 수행실패 시, 부정적인 발달의 증대(developmental cascades) 현상이 나타나(Wright & Masten, 2005) 성장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대처는 성공적인 적응을 도모하여(Condly, 2006) 건강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자녀가 높은 자아 탄력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장휘숙, 1998)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은 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아의 첫 번째 사회는 가정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유아발달에 가정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y)은 도덕적 가치, 신념 등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를 지향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개별성을 존중해 주면서 생활해 가는 체계라 정의할 수 있다(Otto, 1962). 또한,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수행능력 및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innett & DeFrain, 1985). 유영주(2004)는 가족건강성을 유대의식, 긍정적 의사소통, 감사·애정·정서, 문제해결 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사회체계와 원활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Olson과 DeFrain(2003)은 건강한 가족일수록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의사소통을 지향하므로(박복매, 문혁준, 2008) 건강한 정서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즉, 가족은 가장 본질적인 사회 환경이자 유아 사회화의 초석을 다지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족환경은 자녀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가족환경의 자극은 반응적 상호작용, 다양한 경험의 제공, 규칙적 양육, 발달촉진환경 등을 의미한다(김지현, 정현심, 김정민, 이순형, 2012). 이러한 물리적·정서적 환경의 빈곤은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환경 자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Linver, Books-Gunn, & Kohen, 2002). 즉,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물리적 환경은 자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Bradley, Corwyn, McAdoo, & Coll, 2001)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심리적 안녕감을 신장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구성 및 경험과 가족환경에 대한 주 양육자의 민감한 태도를 함께 탐색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Olson, Portner와 Lavee(1985)는 가족의 기능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력 정도를 알아보는 가족 응집력과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융통성을 의미하는 가족 적응력으로 살펴보았는데, 가족의 기능이 높을수록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건강한 가족은 주 양육자와 자녀,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며,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가족의 적응력과 응집성 형성에 원동력이 되어 사회체계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Olson & DeFrain, 2000). 반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작용하여, 결국,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유영주, 2004). 즉,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양육자는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양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Belsky, 1984).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이된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특성인 가족건강성과 가족환경, 가족기능이 자녀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감안할 때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의 예측요인인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Berry, Dunlap, Cotton, Lochman, & Wells, 2005; Bradley & Corwyn, 2002; Linver et al., 2002; McLoyd, 1998; Rijlaarsdam et al., 2013). 다문화 가정은 남한사회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어려움, 언어·문화의 이질성 등의 위험요인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야기시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신선희, 2010). 그런데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노출을 감소시키는(Cassel, 1974) 등 생활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여(Antonovsky, 1974)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김미정, 정계숙, 2007; 조혜영, 권정윤, 2013; 조혜영, 김미경, 이문옥, 2013).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 조혜영, 권정윤, 2013)과 사회적 편견(허준영, 2012)은 이들의 정신적 고통에 주된 원인이 된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측면을 비롯한 정서적인 부분까지 보다 폭 넓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하지만,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대부분은 생계지원의 성격이 많은 실정이다(최성일, 2012).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주로 동화주의(assimilationist)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인데(허준영, 2012),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ist model)은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수용하기 보다는 주류사회로의 동화를 강조하는 등 제한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종합하면, 가족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시도는 이들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 정서 및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등 위험요인을 보호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 적응과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Cobb, 1976). 따라서, 높은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완화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거나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는 시도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의 자아 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요인과 양육특성에 관한 연구(장여진, 2014; 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가족의 환경적 특성과 유아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Garmezy, 1993; Mistry, Vandewater, Huston, & McLoyd, 2002)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의 특성 요인은 자녀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 보다 의미 있는 관련이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유

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양육경험 및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김미정, 정계숙, 2007; 전혜림, 2014)와 양육 및 상호작용 특성과 자녀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권정윤 외, 2013; 조혜영, 배지희, 2014; 최창욱, 조혜영, 2015),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조혜영, 권정윤, 박희영, 2014; 조혜영 외, 2013)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의 유아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생애초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관련한 연구가 미비하고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라서 이에 대한 요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총 25,436명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26.4%(6,717명)로 경기도 28.6%(7,268명)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통일부, 2014), 단위면적 대비 인구의 밀도가 서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탈북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과 아직까지 양육을 비롯한 가사 등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에 여성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그리고, 유아기에 가장 많이 접하는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의 시도는 이들 자녀의 자아 탄력성을 증진시켜 주기 위하여 가정과 연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며, 만 3-5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을 가정의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영향력을 탐색해 보며, 이때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reen(1991)의 표본 수 선정기준인 $50+8X$ (독립변수)와 불성실한 응답 및 누락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100명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 서북생활권에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의 도움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전화를 통하여 연구에 동의하고, 참여하길 희망하는 연구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100명의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과 연구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96부(96%)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96)

구 분			N(%)	구 분			N(%)	
연령	35세 이하		23(24.0)	어 머 니	남한 거주 기간	60개월 이하		10(10.4)
	36세 이상-40세 이하		49(51.0)			61개월 이상-120개월 이하		56(58.3)
	41세 이상		24(25.0)			121개월 이상		30(31.3)
어 머 니 학력	고졸		58(60.4)	성별	남			44(45.8)
	전문대졸		23(24.0)		여			52(54.2)
	대학교졸 이상		15(15.6)		유 아 연령	만 3세		31(32.3)
남한 거주지 (서울특별시, 2006)*	동북생활권		33(34.4)	만 4세		37(38.5)		
	서북생활권		23(24.0)	만 5세		28(29.2)		
	도심권		6(6.3)	출생 순위	첫째		61(63.5)	
서남생활권		26(27.1)	둘째		30(31.3)			
동남생활권		8(8.3)	셋째 이상		5(5.2)			

* 동북생활권(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서북생활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남생활권(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동남생활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연구 도구

1) 가정의 심리적 특성

(1)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영주(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에서 가족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항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은 ‘유대의식’ (8문항), ‘긍정적 의사소통’ (7문항), ‘감사·애정·정서’ (8문항), ‘문제해결 수행능력’ (9문항)으로 총 32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은 하위내용의 특성을 가족건강성 유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유대의식 .720, 긍정적 의사소통 .723, 감사·애정·정서 .734, 문제해결 수행능력 .778로 나타났다.

(2) 가족환경

가족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김지현 등(2012)의 유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김지현 등(2012)이 사용한 ‘발달촉진환경’ 척도에서 ‘집에 아이가 듣는 음악 CD나 테이프 5점 이상 있다’ 등의 문장은 응답의 모호성과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물리적 환경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환경의 하위영역은 ‘반응적 상호작용’ (7문항), ‘다양한 경험’ (4문항), ‘규칙적 양육’ (3문항)으로 총 14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은 하위내용의 특성을 가족환경 유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환경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반응적 상호작용 .703, 다양한 경험 .769, 규칙적 양육 .760으로 나타났다.

(3) 가족기능

가족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Olson 등(1985)의 FACES-III(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를 김윤희(1990)가 번안한 것을 이경호(1999)와 천지원(2013)이 사용한 문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천지원(2013)이 사용한 도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가족건강성’ 척도에서 유사한 문항이 발견되어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예: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와 ‘우리가족은 서로 잘 돕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은 ‘가족 응집력’ (9문항), ‘가족 적응력’ (9문항)으로 총 18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은 하위내용의 특성을 가족기능 유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기능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가족 응집력 .809, 가족 적응력 .740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박지원(1985)이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것을 김은숙(2003)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에서 문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김은숙(2003)이 사용한 문항 가운데 중복되는 문항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거부감을 보인다는 예비연구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삭제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예: ‘배우자, 친척, 조부모는 무슨 일이건 댓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와 ‘배우자, 친척, 조부모는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준다’ 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은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5문항), ‘평가적 지지’ (5문항)로 총 23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은 하위내용의 특성을 사회적 지지의 유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 .828, 정보적 지지 .712, 물질적 지지 .753, 평가적 지지 .721로 나타났다.

3) 자아 탄력성

유아의 자아 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LeBuffe와 Naglieri(1999)의 DECA(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가운데 ‘전체하위요인’ (Total Productive Factors)을 고영희(2010)가 번안하여 제작한 것을 장여진(2014)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에서 문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장여진(2014)이 사용한 도구의 문항 가운데 ‘인내심을 보였습니까?’와 ‘첫 번째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차선책을 받아들였습니까?’의 문항은 응답의 모호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질문형을 문장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예: ‘해야 할 일을 혼자 힘으로 해내었습니까?’의 문항을 ‘나의 자녀는 해야 할 일을 혼자 힘으로 해내었다’ 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 탄력성의 하위영역은 ‘애착’ (8문항), ‘자기통제’ (7문항), ‘주도성’ (10문항)으로 총 25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 탄력성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애착 .767, 자기통제 .780, 주도성 .768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서북생활권에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의 도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5년 1월 3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하던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남한의 가정보다 물리적·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자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를 함께 논의하였고, 연구 진행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015년 1월 10일 1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자녀의 자아 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을 제작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에게 설문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특히, 설문문항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왜곡할 수 있는 문항(예: ‘집 안에 미술 작품이 2점 이상 전시되어 있다’, ‘아이는 일 년에 1-2회 가족여행을 한다’ 등)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항, 질문형과 문장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 등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여 이를 수렴하였다. 1월 13일 2차적으로 1차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내용을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과 유아교육 박사 1명에게 설문문항의 적합성과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답변하기에 모호한 질문(예: ‘인내심을 보였습니까?’ 등)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받아 이를 수렴하였다. 1월 15일 3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과 유아교육 교수 1명에게 최종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수정·보완한 내용에 대해 응답이 양호할 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과 연구진이 함께 전화를 통하여 연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 모집된 연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100명이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과 연구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96부(96%)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유아의 자아 탄력성의 하위영역은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알아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호항(상호작용항)을 표준화 하는 방법의 센터링(center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기 앞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변인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가정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측정한 점수의 평균(M)은 3.02점(SD=.734)부터 3.24점(SD=.553)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은 ‘문제해결 수행능력’ (M=3.23, SD=.448), ‘유대의식’ (M=3.19, SD=.536)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환경 하위영역은 ‘반응적 상호작용’ (M=3.24, SD=.553), ‘규칙적 양육’ (M=3.14, SD=.707)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하위영역은 ‘가족 적응력’ (M=3.19, SD=.459), ‘가족 응집력’ (M=3.07, SD=.599)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은 ‘평가적 지지’ (M=3.27, SD=.578), ‘물질적 지지’ (M=3.11, SD=.539), ‘정보적 지지’ (M=3.11, SD=.582)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 탄력성 하위영역은 ‘주도성’ (M=3.26, SD=.478), ‘애착’ (M=3.23, SD=.5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변인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N=96)

변인			M	SD	변인			M	SD	
가정의 심리적 특성	유대의식		3.19	.536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06	.689		
		가족	긍정적 의사소통	3.14		.595	정보적 지지	3.11	.582	
	건강성	감사·애정·정서	3.14	.579		물질적 지지	3.11	.539		
		문제해결 수행능력	3.23	.448		평가적 지지	3.27	.578		
	반응적 상호작용		3.24	.553		애착		3.23	.599	
		가족환경	다양한 경험	3.02			.734	자아 탄력성	자기통제	3.10
		규칙적 양육	3.14	.707		주도성	3.26		.478	
	가족기능	가족 응집력	3.07	.599						
		가족 적응력	3.19	.459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가족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 총점을 중심으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의 유대의식($r=.512, p<.01$), 긍정적 의사소통($r=.367, p<.01$), 감사·애정·정서($r=.587, p<.01$), 문제해결 수행능력($r=.562,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족환경의 반응적 상호작용($r=.583, p<.01$), 규칙적 양육($r=.380,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다양한 경험($r=.178,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기능의 가족 응집력($r=.559, p<.01$), 가족 적응력($r=.576,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 총점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r=.426, p<.01$), 정보적 지지($r=.508, p<.01$), 평가적 지지($r=.355,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물질적 지지($r=.182,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복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가족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 (N=96)

	1-1)	1-1)	1-1)	1-1)	1-2)	1-2)	1-2)	1-3)	1-3)	2	2	2	2	3-	3	3	3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 가정의 심리적 특성																	
1-1) 가족건강성																	
① 유대의식	1																
② 긍정적 의사소통	-.041	1															
③ 감사·애정·정서	.440**	.143	1														
④ 문제해결 수행능력	.300**	.320**	.392**	1													
1-2) 가족환경																	
① 반응적 상호작용	.560**	.268**	.526**	.406**	1												
② 다양한 경험	.002	.210*	.190	.374**	.098	1											
③ 규칙적 양육	.202*	.189	.242*	.280**	.159	.325**	1										
1-3) 가족기능																	
① 가족 응집력	.287**	.313**	.292**	.421**	.276**	.272**	.355**	1									
② 가족 적응력	.231*	.469**	.396**	.567**	.270**	.389**	.320**	.301**	1								
2. 사회적 지지																	
① 정서적 지지	.225*	.358**	.298**	.270**	.269**	.163	.029	.452**	.276**	1							
② 정보적 지지	.518**	.177	.446**	.316**	.375**	.081	.359**	.227*	.437**	.052	1						
③ 물질적 지지	.090	.410**	.107	.154	.215*	.029	.067	.219*	.267**	.132	.021	1					
④ 평가적 지지	.281**	.339**	.363**	.410**	.421**	.282**	.092	.283**	.260*	.388**	.236*	.143	1				
3. 자아 탄력성																	
① 애착	.509**	.178	.401**	.208*	.515**	-.071	.279**	.329**	.237*	.097	.523**	.031	.254*	1			
② 자기통제	.251*	.204*	.362**	.438**	.244*	.130	.197	.440**	.464**	.427**	.154	.237*	.134	.048	1		
③ 주도성	.308**	.426**	.495**	.587**	.477**	.370**	.340**	.427**	.557**	.414**	.392**	.127	.382**	.373**	.363**	1	
④ 총점	.512**	.367**	.587**	.562**	.583**	.178	.380**	.559**	.576**	.426**	.508**	.182	.355**	.697**	.655**	.782**	1

* $p<.05$, ** $p<.0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 하위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은 가족건강성의 유대의식($r=.509, p<.01$), 감사·애정·정서($r=.401, p<.01$), 문제해결 수행능력($r=.208, p<.05$)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긍정적 의사소통($r=.178,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환경의 반응적 상호작용($r=.515, p<.01$), 규칙적 양육($r=.279,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다양한 경험($r=-.071,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기능의 가족 응집력($r=.329, p<.01$), 가족 적응력($r=.237, p<.05$)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정보적 지지($r=.523, p<.01$), 평가적

지지($r=.254, p<.05$)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정서적 지지($r=.097, p>.05$), 물질적 지지($r=.031,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아의 자아 탄력성 하위내용인 자기통제는 가족건강성의 유대의식($r=.251, p<.05$), 긍정적 의사소통($r=.204, p<.05$), 감사·애정·정서($r=.362, p<.01$), 문제해결 수행능력($r=.438,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족환경의 반응적 상호작용($r=.244, p<.05$)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다양한 경험($r=.130, p>.05$), 규칙적 양육($r=.197,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기능의 가족 응집력($r=.440, p<.01$), 가족 적응력($r=.464,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r=.427, p<.01$), 물질적 지지($r=.237, p<.05$)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정보적 지지($r=.154, p>.05$), 평가적 지지($r=.134,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 하위내용인 주도성은 가족건강성의 유대의식($r=.308, p<.01$), 긍정적 의사소통($r=.426, p<.01$), 감사·애정·정서($r=.495, p<.01$), 문제해결 수행능력($r=.587,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족환경의 반응적 상호작용($r=.477, p<.01$), 다양한 경험($r=.370, p<.01$), 규칙적 양육($r=.340,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족기능의 가족 응집력($r=.427, p<.01$), 가족 적응력($r=.557,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r=.414, p<.01$), 정보적 지지($r=.392, p<.01$), 평가적 지지($r=.382,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물질적 지지($r=.127,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가족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본 연구의 자료가 회귀 분석 연구모델로 분석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았다.

Baron & Kenny(1986)는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교호항(상호작용항)은 표준화 또는 평균이동을 통해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호항(상호작용항)에 생성되는 독립변수(가족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와 조절변수(사회적 지지)를 표준화 하는 방법의 센터링(centering)을 통해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방지하였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연구모델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F 값의 유의확률을 유의수준($p<.05, p<.01, p<.001$)에 입각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으며, 잔차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Durbin-Watson test 값이 2에 가까운지를 살펴보았다. 공차의 값이 .1이하이거나 VIF 값이 10이상 일 때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Durbin-Watson test 값은 2.088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의 F 값은 21.790($p<.001$)이었으며, 공차값은 .502부터 .781까지였고, VIF 값은 1.281부터 1.992로 나타났다. Mode 2의 F 값은 19.417($p<.001$)이었으며, 공차값은 .390부터 .768까지였고, VIF 값은 1.302부터 2.563으로 나타났다. Mode 3의 F 값은 11.027($p<.001$)이었으며, 공차값은 .177부터 .634까지

였고, VIF 값은 1.578부터 5.660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연구모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N=96)

요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가족건강성	유대의식	.089	.124	1.547	.083	.115	1.371	.054	.076	.791
	긍정적 의사소통	.035	.054	.727	.028	.043	.518	.038	.058	.597
	감사·애정·정서	.127	.191	2.506*	.123	.185	2.357*	.031	.047	.478
문제해결 수행능력	.090	.105	1.304	.089	.104	1.285	.133	.155	1.706	
가족환경	반응적 상호작용	.143	.205	2.449*	.141	.203	2.391*	.122	.175	1.894
	다양한 경험	-.074	-.141	-2.046*	-.074	-.142	-2.046*	-.079	-.150	-1.907
	규칙적 양육	.054	.099	1.462	.055	.101	1.484	.022	.040	.536
가족기능	가족 응집력	.174	.271	3.781***	.170	.264	3.548***	.157	.245	2.741**
	가족 적응력	.229	.274	3.258**	.226	.270	3.174**	.186	.222	2.485*
	사회적 지지			.032	.031	.322	.196	.187	1.523	
가족건강성	유대의식						-.022	-.057	-.506	
	× 사회적 지지									
	긍정적 의사소통						.017	.042	.373	
	× 사회적 지지									
	감사·애정·정서						-.125	-.317	-2.254*	
가족환경	×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 수행능력						.067	.181	1.691	
	× 사회적 지지									
	반응적 상호작용						.069	.174	1.581	
	×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	다양한 경험						.035	.090	1.034	
	× 사회적 지지									
	규칙적 양육						.007	.020	.224	
	× 사회적 지지									
	가족 응집력						.024	.059	.501	
가족기능	× 사회적 지지									
	가족 적응력						-.008	-.020	-.171	
	× 사회적 지지									
	F	21.790***			19.417***			11.027***		
	R ²	.695			.696			.734		
	R ² 변화량				.001			.038		

*p<.05, **p<.01, ***p<.001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실시하였다.

Model 1단계에서 유아의 자아 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정의 심리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가정의 심리적 특성은 69.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대해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인 ‘감사·애정·정서’ ($t=2.506, p<.05$), 가족환경의 하위영역인 ‘반응적 상호작용’ ($t=2.449, p<.05$)과 ‘다양한 경험’ ($t=-2.046, p<.05$),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가족 응집력’ ($t=3.781, p<.001$)과 ‘가족 적응력’ ($t=3.258,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 2단계에서 유아의 자아 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 증가하여 69.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지지가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단계에서 유아의 자아 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교호항(상호작용항)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3.8% 증가하여 73.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대해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인 ‘감사·애정·정서×사회적 지지’ ($t=-2.254, p<.05$)의 교호항(상호작용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며, 이때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은 유아의 자아 탄력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변인은 상이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가족의 지지는 자녀의 적응 유연성을 증진시켜 위험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신선희(201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김정미와 광금주(2007)의 가정환경 자극이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주 양육자의 높은 소득과 학력은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등 가족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복매, 문혁준, 2008).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임에도 불구하고(김정미, 광금주, 2007) 북한이탈주민의 41.8%가 월평균 소득이 ‘101~150만원’이며, 70.2%가 북한에서의 학력이 고등중학교로 나타나(송헌재, 2015) 우리사회에서 낮은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기관 중심에서 개별 욕구

를 수용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아 탄력성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소수집단 유형의 특성에 따른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의 개발은 이들이 다양한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탄력성이 높은 유아들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함양하는 것으로 보고되어(Garmezzy, 1993) 북한이탈주민 자녀 역시 자아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정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질적 지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사회적 지지가 재정적인 부분에 한정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제공 받는 생활권 등의 사회적 보장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미비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며(조혜영, 권정윤, 2013), 이 과정에서 형성되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결국,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가 미비하여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유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 밝힌 허준영(2012)의 연구결과와 맥락과 함께하는 것이라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또한, 남한 사람들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조혜영과 권정윤(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자녀의 문제있는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Berry et al., 2005),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서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최성일, 2012), 이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우울, 스트레스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DeFrain, 2002) 양가감정 등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유아의 자아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분을 위주로 한정지어 지원하는 것 보다 이들의 정서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개별화 가족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69.5%의 설명력이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의 ‘감사·애정·정서’ 변인과 가족환경의 ‘반응적 상호작용’, 가족기능의 ‘가족 응집력’, ‘가족 적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족환경의 ‘다양한 경험’은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기능의 가족 응집력이 자녀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Garmezzy(1993)와 Mistry 등(2002)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며, 가정환경 자극이 자녀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밝힌 Linver 등(2002)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결국, 가정의 심리적 환경인 양육자의 안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정계숙 외, 2012). 마찬가지로

로, 양육자의 안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건강한 정서를 이끄는데, 가족 간에 감사와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태도를 갖게 되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된다(DeFrain, 2002).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이들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를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 생활방식의 이질성에서 오는 경험의 차이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조혜영, 권정윤, 2013). 특히,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에는 발달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이들 부모의 양육과 교육 등 가치관 차이로 인해 다양한 부분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주 양육자와 자녀 간의 건강한 신뢰관계는 유아들로 하여금 스스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여 발달과정의 위험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나(Rolfe, 2004)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가정의 심리적 특성, 사회적 지지, 교호향(상호작용)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73.4%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 요인이 조절효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 지지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생계형 성격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최성일, 2012), 생계형 지원의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는 심리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 되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ist model)에 입각한 정책이기 때문에(허준영, 2012) 이를 다시 한 번 재고함으로써 이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존(symbiosis)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다름에 대한 상호 인정과 배려가 동반된 사회통합 정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교육을 어머니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김윤아, 2013).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의 대상을 어머니로 한정짓는 것이 아닌 아버지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부모교육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실행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과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여 자녀 발달 및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해 주고, 유아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족기능은 Model 1단계부터 Model 3단계까지 모두 영향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자아 탄력성 함양을 위해서는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Garmezy, 1993; Mistry et al., 2002). 주지하듯이, 유아의 발달에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은 우리사회 변화의 물결에 원만한 적응이 어려운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교육열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혼란을 겪고 있어 정신적,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혜영 외, 2013). 그리고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 구성원들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기능이 더 중요한 요인이며(Olson & DeFrain, 2003), 가족의 건강성과 기능이 부적절할 때 가족폭력을 비롯한 사회부적응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DeFrain, 2002)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제기된다.

이상 종합하면, 현재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의 경험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생각의 차이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유한 특성에 알맞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서독은 개인주의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성격이 강하다면, 동독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민족적 이념체계는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심리적 환경 및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정영수, 1998). 독일의 통일 이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지원은 크게 가족, 아동의 삶,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로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윤선영, 2003).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와 북한사회 역시 이질적인 가족 분위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융화와 화합을 추구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녀의 자아 탄력성을 비롯한 전인적인 발달을 함양시킬 수 있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위한 폭 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질적인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며, 국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른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탐색해 보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자아 탄력성에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로 나타난 만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및 자녀의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우리사회 적응에 중요한 사안임만큼,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상, 하 집단별로 구분하여 자녀의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영희 (2010). 유아의 자아 탄력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정윤, 조혜영, 김미경 (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회지**, 17(4), 275-296.
- 김미정, 정계숙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이야기. **아동학회지**, 28(1), 71-94.
- 김윤아 (2013).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법과 인권교육연구**, 6(2), 1-21.
- 김윤희 (1990).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숙 (2003).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유아 정서지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미, 광금주 (2007). 취학전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 가정환경 자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 탐색. **아동학회지**, 28(2), 305-317.

- 김지현, 정현심, 김정민, 이순형 (2012). 유아용 가정환경 척도 개발 연구. **아동교육**, 21(1), 77-92.
- 박복매, 문혁준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지향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10), 11-22.
- 박지원 (1985). 성인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불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 **2014년 새터민 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서울특별시 (2006). **서울도시기본계획 전략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청.
- 송헌재 (2015).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 서울: 자유경제원.
- 신선희 (2010). 적응유연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보호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319-344.
-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윤선영 (2003). **보육지원을 위한 외국의 제도: 독일의 보육제도**.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 이경호 (1999). 정신분열병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 기능 비교연구. **정신간호학회지**, 8(1), 39-49.
- 장여진 (2014).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 (1998). **가족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혜림 (2014).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사회적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1), 73-97.
- 정영수 (1998).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의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혜영, 권정윤 (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에 대한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67-96.
- 조혜영, 권정윤, 박희영 (2014).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자녀성취압력 및 교육신념과 교육열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4(2), 147-163.
- 조혜영, 김미정, 이문옥 (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 영어교육 실태와 어려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201-228.
- 조혜영, 배지희 (201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91-114.
- 천지원 (2013).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기능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유아 문제행동.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성일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과 과제**.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창욱, 조혜영 (2015).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놀이참여 및 신념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2015년도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27-140.
- 통일부 (2014). 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 에서 2015년 2월 13일 인출.
- 허준영 (201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21(1), 271-300.

Antonovsky, A. (1974).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problems in the study of resistance resources and stressful life events. In B. S. Dohrenwend & B. P. Dohrenwend (Eds.), *Stressful life events:*

- Their nature and effect* (pp. 1-43). NY: Wiley.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rry, T. D., Dunlap, S. T., Cotton, S. J., Lochman, J. E., & Wells, K. C. (2005). The influence of maternal stress and distress on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in boys.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44*(3), 265-273.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gs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pp.39-101), Hillsdale, NJ: Erlbaum.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371-399.
- Bradley, R. H., Corwyn, R. F., McAdoo, H. P., & Coll, C. G. (2001). The home Environment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 : Variations by age, ethnicity, and property status. *Child Development, 72*(6), 1844-1867.
- Cambell, S. B., Pierce, E. W., March, C. L., Ewing, L. J., & Szumowski, E. K. (1994). Hard-to-manage preschool boys: Symptomatic behavior across contexts and time. *Child Development, 65*(3), 836-851.
- Cassel, J. (1974). Psychological processes and stress: Theoretical form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3), 471-482.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Greenwood Press: Westport Connecticut London.
- Chuang, S. S., Lamb, M. E., & Hwang, C. (2006). Personality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4), 338-34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ndly, S. J. (2006). Resilience in children: A review of literature with implications for education. *Urban Education, 41*(3), 211-236.
- DeFrain, J. (2002). Global perspective on strong families. *Building family strengths,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book, June 12-14*, Shanghai, China.
- Fantuzzo, J., McWayne, C., & Blosky, R. (2003). Forging strategic partnerships to advance mental health science and practice for vulnerable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32*(1), 17-37.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 56*(1), 127-136.
- Green, S. B. (1991). How many subjects does it take to do a regression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6*(3), 499-510.
- Hovey, Y. D., & Magana, C. G.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2), 223-237.

- LeBuffe P. A., & Naglieri, J. A. (1999). *The dex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Lewisville, NC: Kaplan Press.
- Linver, M. R., Brooks-Gunn, J., & Kohen, D. E. (2002). Family processes as pathways from income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 Psychology, 38*(5), 719-734.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 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2.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sten, A. S. (2001).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istry, R. S., Vandewater, E. L., Huston, A. C., & MoLoyd, V. C. (2002). Economic well-being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The role of family process in an ethnically diverse low-income sample. *Child Development, 73*(3), 935-951.
- Olson, D. H., & DeFrain, J. (2000). *Marriages and families: Diversity and strengths* (3rd ed.). Mountain View, CA: Mayfield.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s and families: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4th ed.). NY: McGraw-Hill.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Otto, H. A. (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0*(1), 77-81.
- Rolfe, S. (2004). *Rethinking attachment for early childhood practice: Promoting security, autonomy and resilience in young children*. Crows Nest, NSW: Allen & Unwin, 19-38.
- Rijlaarsdam, J., Stevens, G. W., van der Ende, J., Hofman, A., Jaddoe, V. W., Mackenbach, J. P., Verhulst, F. C., & Tiemeier, H. (2013). Economic disadvantage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Mechanisms of risk.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1), 125-137.
- Stinnett, N., & DeFrain, J. (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Little Brown & Co.
- Van Tuijl, C., & Leseman, P. P. M. (2007). Increases in the verbal and fluid cognitive abilities of disadvantaged preschool in the Netherlan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2), 188-203.
- Wright, M. O., & Masten, A. S. (2005).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Fostering positive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adversity. In S. Goldstein & R. Brooks (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pp.17-37). NY: Kluwer Academic/Plenum Press.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perceived hom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go-resilience of their young childre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this purpose, we sampled 96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with 3-5 year old children. Hom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onsisting of family strength, family environment and family functioning,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was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perceived hom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go-resilience of their young children. Second, the perceived factors by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f hom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xplained their young children's self-resilience 73.4% of the time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e effective social support to North Korean refugees has to be offered. Not only financial but emotional support is also needed.

▶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perceived family strength,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moderating effect*

논문투고 2015. 10. 15.
수정원고접수 2015. 12. 02.
최종게재결정 2015. 12. 11.